

# 남원시, 경제활동친화성 1위

### 인센티브 5천만원 확보... 다가구주택 건축·음식점창업·유통·물류 등

남원시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전북 1위(S등급)를 차지하여 인센티브 5천만원을 받게 되었다.

경제활동친화성 평가는 전국 228개 지자체의 규제상황과 기업지원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순위와 등급(S~D)을 발표한 자료이다.

이번 평가에서 남원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다가구주택 용적률을

250%로 완화하고 조경의무를 일부 면제해 주고 일반음식점에 대해 테라스 영업을 허용하는 등 다가구주택 건축, 음식점창업, 유통·물류, 공공수주·납품 분야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았다. (\* 1위 남원, 2위 장수, 3위 정읍)

그동안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상위법

령과 자치법규를 발골 정비하는 한편, 기업현장 애로해소와 공무원 행태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공무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끝까지 처리하는 규제후견인제도 운영과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규제개선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 심민 임실군수, AI 방역초소 방문 현장점검

### 차단 방역활동 점검·방역요원 격려 등

임실군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전 차단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 가운데 심민 군수는 관내 설치된 방역초소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격려했다.

심민 군수는 최근 강진, 신덕, 관촌 방역초소를 차례로 방문해 차단 방역 활동을 면밀히 점검하고 AI 조기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역요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심 군수는 "AI 장기화 추세에 따라 방역요원들의 휴식시간과 근무여건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

라며,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선제적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AI 초기 단계인 지난해 11월 28일부터 관촌면에 거점소독장소와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AI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강진면과 신덕면까지 초소를 확대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또한, AI 청정 지역 유지를 위해 농가별 공무원담당제를 통해 가금농가 전화예찰, 마을방송, SMS 발송, 축사 내외 방역 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

며 축산관련 유관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임실축협과 공동방제단을 편성하고 소규모 농가, 전통시장 가금류 판매업소, 가든형 식당 및 취약지역 소독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AI 선제적 예방을 위해 축사 내·외부 소독, 차량 및 외부인 출입통제, 축사별 신발 착용, 축산인 모임 금지 등의 차단방역 대응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심축 발견시 읍·면 및 군청 상황실(☎640-2501) 또는 가축방역기관(☎1588-4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지난해 하반기 이·퇴임식 열려

남원시 2016년 하반기 이·퇴임식이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시청 강당에서 이환주 남원시장과 선·후배 공무원,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하반기 이·퇴임식 대상자는 정년퇴직 6명, 공로연수(이임) 6명, 명예퇴직 3명 등 모두 15명이다.

이 자리에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퇴임 공무원들에 대한 공로패 수여와 공직자의 아내로서, 남편으로 묵묵히 변함없는 내조를 해준 배

우자들의 노고에 대해 남원시 전 공무원들의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환주 시장은 "오랜 시간을 남원시 중심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신 열정에 감사와 존경을 보내드린다."며, "퇴임 후에도 지역의 선도자로, 지역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늘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문용 전 도동통장은 퇴임사에서 공직생활을 같이 해주신 선·후배공

### 정년퇴직 6명 등 총 15명

무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은 공직자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에 달려있다."고 후배 공무원들의 진취적인 사고와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옥막내, 유재만, 이몽석, 이수완, 이창근, 황길주(이상 정년퇴임), 박문용, 박종찬, 박준철, 양정진, 임영란, 장기호(공로연수), 문길수, 서종오, 이두성 직원은 명예퇴임 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고창군, 정년퇴직 공무원들에 공로패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하반기 정년퇴직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29일 회의실에서 열린 행사는 박우정 군수, 김상호 부군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에 퇴직을 맞은 공무원은 정만수(전 고창읍장), 조재길(기획예산실 감사팀장), 전양호(공음면 부면장), 전흥희(환경시설사업소), 박경원(문화관광과), 김영봉(체육청소년사업소), 유종삼(산림공원과), 김진수(대산면), 최용순(산림공원과), 이정수(전 상내면 부면장), 오연현(농업기술센터) 등 총 11명이다.

이날 명예로운 퇴임을 맞이한 정만수 지방행정사무관 등 11명이 공로패를 수여 받았으며 김현기 전 주민복지과장 등 7명에게 30년 이상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노고를 녹조근정훈장과 근정포장, 국무총리, 장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지난해 12월 29일 2016년도 하반기 정년퇴직 기념식을 개최했다.

### 정만수 전 고창읍장 등 총 11명

관 표창패가 전수됐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군정이 활기차게 운영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 냈던 것은 군민의 동참을 이끌어내며 열심히 노력한 퇴직공무원의 덕분으로 생각한다"며 "민간

/고창=김영식 기자

## 순창군, 농촌지역 삶의 공간 개선

순창군이 농촌개발사업 분야에서 최근 6년간 31개사업에 780억을 투자해 농촌 삶의 질을 높인데 이어 올해도 120억 규모의 사업비를 최종 확보해 농촌지역 삶의 공간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군은 황숙주 군수가 취임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농촌개발사업 분야에 투자한 예산이 총 31개 사업 780억 규모라고 밝혔다. 특히 농촌마을개발사업은 의료·문화·서비스 분야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농촌을 농업생산 공간만이 아니라 삶의 공간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크

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그만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효과 또한 크다는 지역 여론이다.

진행된 사업을 살펴보면 읍면 소재지의 문화복지경관개선, 기초생활기반 강화 사업에는 순창읍, 북흥, 생치, 구림, 금과, 동계 등 6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236억여원이 투자됐다. 마을별로 특색있는 자민 발굴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중심을 둔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월곡 꾸지뽕마을, 유등에너지 자립마을 등 8개 사업에 22억여원이 투자됐다. 동일한 생활권 마을기초 생활과 공동문화와 소득기

반 창출을 목표로 하는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도 7개 사업에 202억원이 투자됐다.

지난해에는 국가예산을 포함해 120억 규모 사업비도 확보해 주민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하고 있다. 국가예산이 확정된 농산어촌개발분야 사업은 ▲팔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57억) ▲적성면 슬로공공체험관광 종합정비사업(37억원) ▲신군창의아이디어 뉴클린순창만들기(6억 7천), ▲생치면 석현마을 체험 소득사업(5억 원), 인계 가곡 공동문화복지사업, 북흥동산경관개선사업 등 8개 사업이다.

군은 올해부터 예산을 투입해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생활환경과 농촌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기관장 신년사

### 군민과 더 많이 대화하고 경청할 것

#### 심민 임실군수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희망찬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임실군은 군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시신 관심과 격려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뤄내, 우리 임실발전의 기틀과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옥정호는 그동안 자치단체간 갈등의 매듭이 풀리면서 옥정호 관광단지 조성에 가속도가 붙어우리 임실의 경제성장을 이끌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열렸던 임실(니치)축제는 전국에서 몰려든 21만여명의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의 가능성과 발전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



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군민 여러분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고, 단합된 힘과 저력을 보여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2017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처음 약속했던 그 마음 변치않고, 시종여일(始終如一)의 자세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외계층을 배려하며, 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 '새로운 변화를 통한 살고 싶은 임실'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겸정겸명(兼聽則明)의 자세로 군민 여러분과 더 많이 대화하고 경청하여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저를 비롯한 6백여 공직자가 더욱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계획하신 모든 일들 이루시고 사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드리며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으로

#### 박우정 고창군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새해를 힘차게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정유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수월하게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창군은 그동안 군민들의 화합과 협력 속에 '한국인의 분향, 아름다운 청정한 명품 고창'을 위한 노력의 결실을 하나하나 가시화하며 군민 행복시대를 활짝 열고자 열심히 뛰었습니다.



올해도 대한민국 최초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명실상부한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군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여 새로운 도약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천혜의 자연생태환경 속에 믿을 수 있는 명품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6차 산업화하며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이루고 품격 높은 세계유산도시로서 불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힐링체험의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꼭 필요하고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으로 순항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무주군-반딧불 협동조합, 업무협약

### 펜지 등 꽃묘 생산·납품 합의

무주군과 반딧불 다모아 협동조합 법인이 지난해 12월 29일 로컬시스템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무주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축제 개최, 꽃길 조성에 사용되는 꽃묘를 관내 농가에서 생산해 직접적인 소득창출로 이어지게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황정수 군수와 반딧불다모아협동조합 이양래 이사장은 펜지 등 꽃묘 24,500본을 생산·납품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꽃묘 생산 기술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양래 이사장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꽃을 반딧불 다모아 협동조합에서

직접 재배함으로써 저소득 농가와 다문화 가정의 수익창출, 자립기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올해는 2017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등으로 필요 수량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딧불 다모아 협동조합은 다문화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상호 간의 고충 해결, 교육, 가정과 육아문제 등에 관한 상담과 정보제공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 설립된 곳으로, 367구 55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농산물 재배·판매를 비롯한 식품제조 및 판매, 교육 서비스업,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훈련, 정보제공 등과 관련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순창경찰 보안협력위 정기회의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는 최근 경찰서에서 보안협력위원회(위원장 서한복)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지난 한 해 동안 보안협력위원회 주요 사업 활동사항 및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이주여성 사회정착 지원 방

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창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이주여성 정착을 위한 실·추적 명절 초청 생활용품 전달, 감장 담그기 체험행사, 이주여성 가족 모국방문 지원 행사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순창=이양원 기자

## 국립돌리사

### 순창농협, 현포마을에 음향기 전달

NH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한재현)는 지난해 12월 29일 순창군 동계면 현포마을회관에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박명문 마을이장과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음향기(150만원 상당)를 전달하였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업대표 및 단체장 등을 농촌마을의 '명예이장'으로 위촉하고 소속 임·직원을 '명예주민'으로 참여시켜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농업과 도시민이 동반자 관계로 함께 성장 발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농협에서 시작한 역점적 사업 중 하나이다.

지난해 10월 현포마을 명예이장으로 위촉된 한재현 지부장은 "현포마을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류와 함께 농촌일손돕기, 마을농산물 팔아 주기, 마을주민사업 지원 등 농촌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고창군,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군은 최근 경주 등에서 지진 발생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을 따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권장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제도를 추진한다고 지난해 12월 29일 전했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구조안전 의무대상 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미만인 민간소유 건축물로 내진보강시 인수를 하는 경우는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고창군청 재난안전과 재난관리팀(063-560-2672)로 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남원관광기념품 경진대회 개최

남원지역의 공예작가 및 업체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기념품 발굴을 위한 제1회 남원관광기념품 경진대회가 최근 남원시청 강당에서 성황리 개최되었다. 이번행사는 남원시관광협의회가 주최한 첫 행사로 남원관광의 대표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해 열렸다.

남원관내 총 26팀이 응모한 이날 대회에서는 옷걸이공예, 식도, 천연염색, 도자기, 허브제품, 한지, 한복소품 등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50여점의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었는데 남원지역의 독특한 전통 칼인 남원식도를 출품한 정길순씨가 1위를 차지하였고 조미연 공예가의 '오간색 옷고름 무늬의 도자기 시계'와 산수유와 코코아를 재료로 만든 소현진씨의 '향단이 수제 초코파이' 그리고 편백나무로 만든 김난희 공예가의 '옷걸이 향이도량 목걸이'가 공동 3위를 차지하였다.

이날 수상제품들은 해당 상품만큼의 완제품을 시에서 구매하여 춘향테마파크 특산물 판매장에서 판매되게 된다.

남원시관광협의회(위원장 배종철)은 "이번 관광기념품 경진대회는 남원시 관광상품 개발의 발전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남원관광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호국원, 고객만족도 최우수 선정

국립임실호국원(원장 신준태)은 지난해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포상증서와 포상금을 받았다.

임실호국원은 국가보훈처 고객만족도 평가지표에서 친절성, 신속성, 편의성, 공정성, 청렴문화 확산 활동 노력도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아 2015년도부터 2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으로 등극하는 영예를 안았다.

신준태 호국원장은 부임 이후 체계적인 친절교육과 훈련을 통해 얻은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보다 성숙된 친절마인드로 호국원을 찾는 참배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